

# 고려시기 사가들의 역사에 대한 견해분석

박사 부교수 최 연 주

##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들은 옛날의 역사적사실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언제나 그것을 높은 정치안목을 가지고 분석적으로 대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2권 530페이지)

고려는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계승하여 국토통일을 이룩한 후 통일국가의 체모에 맞게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정비하였으며 그 과정에 역사를 편찬하기 위한 국가기구도 나오고 역사편찬사업을 진행하였다.

고려시기에 편찬된 대표적인 역사책으로서는 《고려실록》, 구《삼국사》, 김부식의 《삼국사기》, 김관의의 《편년통록》, 일연의 《삼국유사》, 리승휴의 《제왕운기》, 리규보의 《동국리상국집》 동명왕편 등이 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 역사학계에서는 고려시기에 편찬된 역사책들과 그 사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구〈삼국사〉에 대한 연구》, 《단군 및 고조선문제에 대한 연구》,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 《고구려를 계승한 해동성국 발해》, 《조선단대사》 등의 저서들이 나왔지만 해당 문제점들에 대하여 당시의 역사자료에만 국한시키였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성과에 토대하여 고려시기에 편찬된 역사책들의 사료들을 서로 대비분석하면서 몇가지 문제들을 중점으로 당시 사가들의 견해를 분석하려고 한다.

## 2. 본론

### 2. 1. 고대사에 대한 견해

고대사에 대한 견해에서 기본은 고조선의 역사와 관련한것이였다.

고려시기의 역사책들에 전해져오는 고조선관계기록들에는 당시 사가들의 견해가 반영되어있다.

첫째로, 단군에 의하여 고조선이 세워졌다는 견해이다.

고조선의 건국설화를 전하는 역사책으로서는 구《삼국사》, 《삼국유사》, 《제왕운기》를 들수 있다.

10세기말에 편찬되였다고 보는 구《삼국사》는 《삼국사기》의 원전으로 된 역사책으로서 원래 이름은 《삼국사》인데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삼국사》라고 하였다.

구《삼국사》의 단군본기는 단군의 출생과정, 단군과 주몽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구《삼국사》의 단군본기내용은 《제왕운기》 단군설화의 원전으로 되어있다.

《삼국유사》에서 일연은 《위서》(魏書)와 《고기》(古記) 등 여러 자료를 인용하여 역사적사실들을 전하면서도 일부 자료에는 자기의 견해를 약간씩 덧붙여놓았다.

일연이 《삼국유사》편찬에서 참고로 한 《위서》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시기를 《지나간 2천년전에 단군왕검이라는 이가 있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나라를 창건하여 이름을 조선이라 하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이다.》라고 하였으며 《고기》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시기를 《당나라 요임금이 즉위한 50년 되는 경인년이다.》라고 하였다.\*1

일연은 이에 대하여 《당나라 요임금이 즉위한 첫해는 무진년인즉 50년은 정사년이요 경인년이 아니다. 확실한 여부가 의심스럽다.》\*2라고 자기의 견해를 밝혔다.

\*1, \*2 《삼국유사》 권2 기이2 고조선

일연이 고조선의 건국시기에 의문을 표시한것은 당연한것이였다. 원래 요임금의 건국년대라는것은 역사적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전설로서 문헌에 따라 기록이 서로 다르게 전해오고있다.

《제왕운기》에도 고조선의 건국설화가 기록되어있다.

리승휴는 《제왕운기》 고조선건국설화를 구《삼국사》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서두를 《본기에 이르기를》이라고 하였다. 이 책의 본기는 다름아닌 구《삼국사》의 본기였다.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는 구《삼국사》에 실려있던 단군에 대한 자료를 전해주는 기록이였다. 물론 그것이 원문 그대로가 아니고 생략된 부분이 많지만 구《삼국사》의 고조선관계자료의 일단을 보여주기때문에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의 내용과 함께 우리 나라 고대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된다.

그는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첫머리에 조선은 강산의 경치가 천하에 이름높아 발갈고 농사짓고 레절밝은 나라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조국력사의 유구성과 계승성을 자랑하면서 단군설화로부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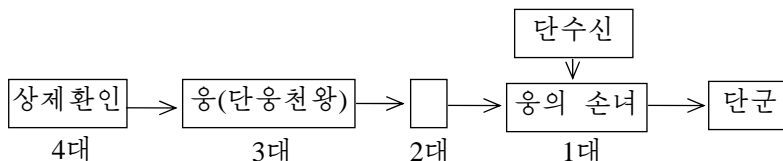
《제왕운기》의 단군설화는 《삼국유사》의 단군설화와 일련의 차이점이 있었다. 즉 《제왕운기》의 단군본기의 내용과 《삼국유사》의 고기의 내용이 다른 점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고기》가 《제왕운기》의 단군본기와 서로 다른 책이며 고려초기에는 단군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 두 책에서의 다른 점은 우선 단군의 출생내용이다.

《삼국유사》의 《고기》에서는 환웅이 곰으로부터 변신한 녀자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하였는데 《제왕운기》의 단군본기에서는 단웅천왕의 손녀가 단수신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고 하였다.

단군의 계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두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단군이 환웅의 아들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단군이 단웅천왕의 외증손으로 된다.

이처럼 《제왕운기》에서는 《삼국유사》와는 달리 단군의 어머니로서 곰녀자가 아니라 웅의 손녀를 등장시킴으로써 단군의 계보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완전히 다르게 재편성 되게 되었다. 즉 단군의 어머니권은 환인이나 그의 아들 웅을 단군의 외권 4대, 3대조상

으로 하여 설정하였다면 아버지권은 단수신 1대에 국한시켜놓았다.

다른 점은 또한 단군후손들의 혈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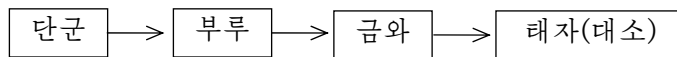
《삼국유사》의 북부여조에는 《고기》에 이르기를 전한 선제 신작 3년 임술 4월 8일 천제가 다섯마리 룡이 끄는 수레를 타고 홀승골성에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나라이름을 일컬어 북부여라 하고 자칭 이름을 해모수라 하였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 하고 《해》로서 성을 삼았다.》라고 기록되어있으며 《제왕운기》에서는 부여에 관한 부분의 《단군본기》주석에서 단군이 《비서잡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 부루라고 이름지었다.》라고 인용하였다.

자료에서는 보는것처럼 《삼국유사》에서는 해부루가 천제 해모수의 아들로 되어있고 《제왕운기》에서는 부루가 단군의 아들로 되어있다.

이 기록대로 한다면 《제왕운기》에서는 부여(북부여)가 단군조선의 직접적계승국으로 되어있는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과 북부여와의 직접적연관을 찾아볼수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의 계보를 2대에서 그치고있지만 《제왕운기》에서는 4대를 넘어 단군아래의 자손들까지도 그의 계보에 인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단군으로부터 그 자손들에게로 이어진 혈통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도표에서와 같이 부루를 단군의 아들로 내세우고 꾸며놓은 이러한 혈통관계가 역사적사실과 어긋난다는데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다.

사실상 고조선과 부여는 엄연하게 서로 다른 나라들이였으며 그 건국시조도 전자에서는 단군이였다면 후자에서는 동명이였다.

비록 《제왕운기》에서 단군의 계보가 역사적사실과 맞지 않게 설정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당시 사람들속에서 우리 민족의 시조가 단군이였으며 그 이후에 존재한 나라들도 모두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조선민족의 나라였다는 의식이 강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다른 점은 또한 고조선의 건국시기, 단군조선의 존재기간이다.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이 건국한 해를 요임금 50년 되는 경인년이라고 하였는데 《제왕운기》에서는 그것을 요임금과 함께 무진년이라고 하였다.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의 재위년간이 1500년간이라고 하였는데 시주 《제왕운기》에서는 그것을 1038년(시에서는 1028년)이라고 하였으며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이 퇴위한 년대를 주나라 무왕 원년 기묘년이라고 하였는데 《제왕운기》에서는 은나라 무정 8년을 미년이라고 하였다. 결국 200년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것들은 다같은 단군의 래력을 전하는 자료들이기는 하지만 이때에 벌써 약간씩 서로 차이나는것들이 존재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며 그것은 곧 단군조선의 역사가 《삼국유사》에서 새로 조작된것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둘째로, 고조선의 수도가 평양이었다고 한것이다.

수도와 관련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만 기록되어있고 《제왕운기》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았다. 《삼국사기》에는 책제목그대로 삼국시기의 역사만을 서술하였기때문에 고대사관계사료는 일부분이며 그가운데서 고구려의 역사와 관련한 부분에 1건의 고조선 관계사료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247년) 봄 2월에 왕은 환도성이 전란을 겪어서 다시 도읍할수 없으므로 평양성을 쌓고 백성들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이 살던 곳이다. 혹은 왕의 도읍을 왕검이라고도 한다.》\*라고 기록되어있다.

\*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동천왕 21년

여기에서 선인(仙人)왕검이라고 한것은 단군을 가리킨것인데 이것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서 선인사상이 있었다는것을 반영한것이며 왕검이라는 말은 당시 임금의 가리키거나 혹은 임금의 수도를 가리키기도 하였다는것이다. 이 기록은 단군조선의 수도가 후한의 평양이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비록 1건의 짝막한 자료를 전하고있지만 이것은 단군설화를 전하는 《삼국유사》보다 훨씬 앞서 한세기반전에도 단군조선의 역사가 전해져오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물론 단군설화를 전하는 역사기록들에서 일련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줄거리가 비슷하다는 사실은 이것이 매우 오랜 역사적연원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셋째로, 고조선의 영역이 광활한 지역이었다고 한것이다.

《제왕운기》 본기에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없는 단군조선의 영역에 관한 기록이 있다.

《제왕운기》 본기에는 《단군은 조선의 영역에 웅거하여 왕이 되었으니 시라, 고례, 남, 북옥저, 동, 북부여, 예, 맥이 다 단군조선의 영역이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 《제왕운기》 하 동국군왕개국년대 병서

이것은 우리 조선민족이 이르기부터 단일민족으로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단군이 통치하는 나라가 조선반도의 전부와 동북일대를 포괄하는 광활한 지역이었다는것을 주석에 밝혔다.

넷째로, 고조선이 삼왕조로 구성되어있었다고 한것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는 다같이 단군조선의 뒤를 이은 후조선과 만조선에 대하여 서술되어있다.

물론 존재하지도 않은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고 해놓았지만 그 외피를 벗기면 후조선과 만조선에 대한 내용이다.

후조선과 관련해서는 《삼국유사》보다 《제왕운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제왕운기》에는 후조선이 세워지게 된 경위와 그 왕대수, 존속기간까지 밝혀져있다.

《제왕운기》에는 후조선의 왕대수가 41대이며 928년동안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놓았다. 후조선의 존속기간은 현재 370여년간의 차이는 있지만 리승휴는 그것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만조선에 대해서는 《제왕운기》보다 《삼국유사》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삼국유사》에서는 만이 조선으로 망명하여 왕이 된 사실, 한나라의 섭하사신과건기사, 고조선-한전쟁기사, 고조선의 멸망 등 여러 내용들이 서술되어있다. 그러나 《제왕운기》에서는 만이 준왕을 내쫓고 나라를 세웠다는것, 손자 우거때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는것만이 서술되어있다.

결국 고려시기에는 그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고조선의 역사와 관련한 사가들의 견해가 많이 기록되어있다.

## 2. 2. 삼국사에 대한 견해

고려시기에 편찬된 역사책들가운데서 삼국의 역사가 많이 서술되어있는것이 구《삼국사》와 《삼국사기》였다.

구《삼국사》는 고구려중심의 역사책이었지만 《삼국사기》는 신라중심의 역사책이었다.

구《삼국사》는 현재 남아있지 않기때문에 그 전반적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고 일부가 다른 역사책들에 전해지고있다.

《삼국사기》는 신라중심으로 서술하다나니 고구려의 강성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 오히려 그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비난하면서 고구려가 신라보다 먼저 멸망한것은 큰 나라들에 순종하지 않았기때문이라는 그릇된 결론까지 내리였다.

첫째로, 고구려건국전설에 대한 사가들의 견해이다.

고려시기에 편찬된 책들에서는 고구려건국전설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견해를 덧붙여 기록해놓았다. 고구려의 건국전설을 전하는 책으로서는 구《삼국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리상국집》 동명왕편을 들수 있다.

고구려건국전설을 대비해보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의 해당 자료들을 인용하면서도 거기에 다른 여러 책들의 자료를 대비적으로 리용함으로써 고구려건국과 관련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면 《제왕운기》는 구《삼국사》에 의거하면서 《동국리상국집》의 동명왕편을 참고로 리용하였다.

리규보는 《동국리상국집》 동명왕편 서문에 자기가 구《삼국사》를 얻어서 동명왕본기를 보니 신비스럽고 기이한 사적이므로 이것을 서술해두지 않으면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하고 하면서 이 시를 쓴 목적을 밝혔다.

그는 동명왕편을 서술하면서 요소요소에 동명왕본기의 구체적인 원문자료들을 주석으로 인용하였다. 이것은 결국 동명왕편의 전반내용과 주석으로 인용된 원문들을 연결하면 곧 구《삼국사》 동명왕본기의 전반내용과 기본상 일치하다는것을 의미한다.

동명왕편에서는 고구려시조 동명성왕을 매우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로 묘사하였으며 고구려건국과정과 그 발전과정을 정연한 체계로 서술하였다.

《제왕운기》에서는 부여기와 고구려기 두개 항목에 동명왕과 관련한 자료를 기록해놓았다.

리승휴는 《제왕운기》 부여기에서 동명본기를 인용하여 북부여의 이야기와 비류국의 사실을 기록하고 주해를 붙였으며 고구려기에서는 본기를 인용하여 고구려의 시조 주몽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였다.

《제왕운기》에서는 동명왕의 아버지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실을 《임술에 천제가 태자 해모수를 보내여 부여왕의 옛 도읍지에서 놀게 하였다. 오룡차를 탔는데 뒤따르는자가 백여명이었고 모두 흰 따오기를 탔다.》\*라고 기록해놓았다.

\* 《제왕운기》 하 동국군왕개국년대 고구려기

이것은 리규보가 쓴 《동국리상국집》의 동명왕편에 인용된 내용과 같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고 다만 《그의 옛 도읍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수 없는 사람이 천제의 아들 해모수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와서 도읍을 정하였다.》\*라고 간단히 써놓았다.

\*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시조 동명성왕, 류리왕

이외에도 《제왕운기》와 《동국리상국집》에는 주몽이 태어나 몇달만에 말을 하였다는 내용, 주몽이 죽은 다음 그가 남긴 옥채찍을 묻어 무덤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삼국사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있지 않았다.

이것을 통하여 《제왕운기》의 동명본기와 《동국리상국집》의 동명왕편은 《삼국사기》가 아니라 구《삼국사》를 원전으로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제왕운기》와 《동국리상국집》의 동명왕편이 똑같은것은 아니였다.

《제왕운기》에서는 동명왕전설을 개괄적으로 간략화하여 인용하였고 동명왕편에서는 동명왕전설을 세부적묘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인용하였다. 즉 《제왕운기》는 구《삼국사》자료를 기본으로 리용하면서도 동명왕편을 참고로 리용하였다.

그뿐만아니라 리승휴는 《제왕운기》에 구《삼국사》나 동명왕편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은것이 아니라 이 두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자기의 견해를 밝혀놓기도 하였다.

이렇듯 《제왕운기》나 《동국리상국집》의 동명왕편은 구《삼국사》의 동명왕전설을 기초로 하였지만 자기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둘째로, 동명왕의 계보에 대한것이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는 동명왕의 계보를 서로 다르게 전하고있다.

《삼국유사》 북부여조에서는 해모수가 세운 나라는 북부여이며 그가 낳은 아들이 부루라는것, 또 해모수는 후에 상제의 명령에 따라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으며 그후 동명왕이 북부여를 이어 나라를 세웠는데 그가 곧 고구려의 시조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는 해모수와 그의 아들 부루와의 관계는 알수 있으나 고구려시조 동명왕과의 관계를 알수 없다. 특히 일연은 동명왕전설을 전하면서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이 《삼국사기》에 없는것으로 보아 구《삼국사》에는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사실과 맞지는 않지만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성을 알수 있다. 그러나 《제왕운기》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부여기가 아니라 고구려기에 기록되어있다.

《제왕운기》의 고구려기에서는 《아버지는 해모수요, 어머니는 류화》라고 쓰고 구《삼국사》 동명본기의 자료를 주석으로 주었다.

《제왕운기》의 이 자료는 곧 동명왕의 계보에 관한 즉 그의 부모와 관련한것이다.

이처럼 《삼국유사》에서는 이 자료가 북부여의 건국자료로 되고있다면 《제왕운기》에서는 동명왕의 계보와 관련한 동명왕관계자료의 첫 부분 자료로 고구려기에서 취급하고있다.

셋째로, 가야국의 존재에 대한것이다.

일연은 《삼국사기》나 《제왕운기》에도 없는 가야의 건국전설과 그 존재를 기록해놓았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하여 쓰면서도 그 나라들과 같은 시대에 존재한 가야에 대하여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후세의 사람들은 가야의 역사에 대하여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가락국기와 5가야라는 항목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가야의 역사를 일부나마 전하고있다.

《삼국유사》 5가야조에는 《5가야는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이다. 본조사략(本朝史略)에 의하면 태조 천복 5년 경자에 5가야의 이름을 고치니 첫번째는 금관이고 두번째는 고령이며 세번째는 비화이고 나머지 2개는 아라와 성산이다.》\*라고 하였다.

\* 《삼국유사》 권1 기이2 5가야

《삼국유사》가락국기조에는 가야의 건국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가 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요약하여 서술하였으며 마지막에 10명의 왕들과 관련한 왕세계가 기록되어있다.

5가야의 명칭이나 그 왕세계에 대한 자료는 가야의 역사를 연구하는데서 매우 가치가 있다.

김부식이 신라에 대해서는 후기신라의 역사까지 끌어다 쓰면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존재한 가야에 대해서는 항목조차 설정하지 않은것은 가야가 신라에 의하여 멸망하였다는 《신라중심》의 역사관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 2. 3. 발해사에 대한 견해

발해사와 관련한 역사책으로서는 구《삼국사》와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를 들수 있다.

첫째로, 발해의 건국자와 그 세력에 대한 견해이다.

고려시기 발해의 존재에 대하여 처음으로 기록한 책은 구《삼국사》와 《신라고기》였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구《삼국사》와 《신라고기》의 자료들을 인용하여 발해의 건국자가 고구려의 유민들이였다는것을 밝혀놓았다.

《삼국사기》에서도 역시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발해를 세웠다고 하였으며 《제왕운기》에서도 고구려의 옛장수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고 하였다. 결국 고려시기 역사연구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발해를 고구려유민들에 의하여 세워졌다는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발해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쓰면서 《…이상의 여러가지 글을 참고해보면 발해는 말갈의 별종이다.》\*라고 기록하였다.

\* 《삼국유사》 권1 기이2 말갈발해

일연은 《삼국사기》보다 앞선 책들인 구《삼국사》나 《신라고기》의 기록을 인용하여 발해를 고구려의 후손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라고 쓰면서도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데서는 발해를 《말갈의 별종》이라고 하였으며 그런데로부터 이 내용을 기록한 항목도 《말갈발해》라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일연은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백제, 고구려멸망후 세워진 발해를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세나라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신라에 대해서만은 후기신라의 역사까지 포함하여 기록해놓았다. 그렇다면 후기신라와 함께 존재한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도 응당 관심을 돌려야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삼국사기》에서 후기신라가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2건의 자료, 최치원이 당나라의 태사시중에게 보낸 1건의 편지, 발해의 등주공격자료, 백제가 망한 후 그 지역 분할과 관련한 1건의 자료만 서술하였다.

김부식은 비록 몇건밖에 안되는 발해관계기사만을 남겨놓았지만 이것은 발해와 후기신라가 병존하였으며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 역사적사실과 맞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는 발해를 후기신라와 함께 존재한 북국으로,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면서도 같은 책의 다른 자료들에서는 《발해말갈》이라고 함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김부식이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것은 그가 《신라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있는데 있었다.

《제왕운기》에서는 후백제를 먼저 서술하고 그다음 발해관계자료가 있다.

물론 발해가 후백제보다 먼저 존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후에 서술한것은 역사적 순서에 맞지 않는것이기는 하나 발해를 우리 민족의 나라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다.

발해의 건국과 관련하여 《제왕운기》에서는 《이전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은 태백산 남쪽성(지금의 남책성. <5대사>에 이르기를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인데 영주 동쪽에서 살았다.>고 함.)에 의거하여 주나라 측천 원년 갑신에(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17년) 나라를 세우고 발해라고 이름지었다.》라고 하였다.

《제왕운기》에서는 발해의 건국자인 대조영에 대하여 고구려의 옛 장수라고 하였는가 하면 중국사서인 《5대사》의 기록에 근거하여 발해를 속말말갈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리승휴는 《제왕운기》에서 발해의 멸망을 전후하여 발해사람들이 서로 이끌면서 고려에 이주해온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그것을 다시 고려에 이어지게 한 나라였다는것을 립론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신라증심》의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하여 자기의 견해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둘째로, 발해의 건국시기에 대한 견해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678년(의봉 3년), 《제왕운기》에서는 684년(측천 원년)으로 전하고있다.

《삼국사기》의 최치원전에 발해의 건국년대가 기록되어있으며 《삼국유사》에는 말갈발해라는 항목에 발해의 건국시기가 기록되어있다. 《제왕운기》에서는 백제기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백제와 후백제의 역사를 쓰고 그 마지막에 발해와 관련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발해의 건국시기가 서로 달리 전해오는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제왕운기》가 서로 다른 사료에 기초하고있었기때문이다.

《삼국유사》에서는 구《삼국사》에 근거하여 발해의 건국년대를 678년으로 해놓았다. 이것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구《삼국사》에 기초하였으며 발해의 건국시기를 달리 전하는 《제왕운기》는 구《삼국사》가 아닌 다른 자료에 근거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678년설, 684년설은 발해의 건국년대가 아니라 고구려유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워진 소국들의 건국년대였다. 678년설은 고구려유민들이 압록강하류일대에 세운 소국의 성립년대였고 684년설은 발해의 전신국가인 진국의 건국년대였다.

고려시기 역사가들의 발해사관은 모두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에 기초한것으로서 발해의 역사적지위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였다.

## 2. 4. 고려사에 대한 견해

고려사와 관련한 책으로는 《고려실록》과 《삼국유사》, 《제왕운기》와 《편년통록》이 있다.

실록은 국왕의 일대기로서 왕이 죽은 후에 편찬하는것을 관례로 하였으며 국가의 중요한 일로 여겼다.

고려시기 실록편찬사업과 관련하여 리첨은 《우리 나라에서는 삼한을 통일한 이후로부터 시비선악을 평정해서 기록할만 한 사실들이 항상 많아 사관도 붓을 멈추지 않고 기록하기는 했으나 왕대가 바뀔 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편찬하였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권117 렬전30 리첨



이것을 통하여 고려시기 실록편찬사업은 그 준비를 미리 해오다가 왕대가 바뀐 후에야 진행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사》에는 3차례에 걸쳐 침입했던 거란침략자들에 의하여 모든 문헌들이 불타버렸던것을 그후 황주량이 왕의 명령에 의하여 각지를 돌아보고 자료를 수집하여 태조(왕건)로부터 목종에 이르는 7대 왕조의 사적을 수록한 36권의 책을 편찬하였다는것이 기록되어있다.\*

\* 《고려사》 권95 렬전8 황주량

《고려실록》은 전란을 겪으면서 류실되기도 하였지만 15세기 《고려사》편찬당시까지만 해도 남아있었다. 그후 어떤 요인으로 하여 없어졌는지는 알수 없고 또 원본이 없는것으로 하여 그의 전면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실록》에 기초하여 편찬된 《고려사》에 근거하여보면 실록에는 고려왕세계로부터 정치관계, 군사관계, 반침략반봉건투쟁, 신분관계, 착취관계, 문화관계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치는 자료들이 수록되어있다.

《고려실록》은 《고려사》와는 달리 편년체형식으로 서술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편년통록》은 고려말기 김관의가 쓴 역사책으로서 고려전반기의 역사를 년대순으로 서술하였다.

이 책 역시 현재 남아있지 않아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알수 없지만 《고려사》의 첫머리에 고려왕세계를 전하면서 《편년통록》의 내용이 일부 서술되어있다.

첫째로, 고려왕실의 계보에 대한 견해이다.

고려왕실의 기원과 관련한 두 책의 자료에서 공통점은 백두산, 호경과 함께 사냥갔던 사람인원수, 범에게 물건을 던졌다는것, 그리고 호경과 범, 산신을 등장시켰다는것이다.

《고려실록》과 《편년통록》, 《제왕운기》에서는 고려왕실의 조상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전하고있다.

다른 점은 우선 왕건의 조상에 대한 문제이다.

《고려사》 고려왕세계 사론에서는 왕실의 계보와 관련하여 《태조실록》과 《편년통록》을 대비하면서 평하였다.

《태조실록》은 정당문학 수국사 황주량이 편찬한것이다. 주량은 태조의 손자인 현종왕대에 벼슬하였던만큼 태조때의 일을 실지로 보고 들은것들이다. 그런데 그 추증에 관한 기사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서술하여 정화왕후를 국조의 부인으로 하여 3대의 조상을 기록하였을뿐 한마디도 세상에서 전하는 설에 언급한것이 없다. 김관의는 의종왕대의 낮은 관리이고 태조시기와는 260여년이나 떨어진 시대의 사람으로서 어찌 당시의 실록을 버리고 도리어 후날의 황당무계한 잡서적들의 설을 신용하여 그렇게 썼는가.》\*

\* 《고려사》 고려왕세계 사론

그러면서 《태조실록》에 기록된 3대 추증에 관한 기록은 옳은것이고 김관의의 설도 세상에 오래 전해온것이기때문에 덧붙여 기록해둔다고 하였다.

물론 고려왕세계의 진가를 론한 사관들의 평은 어느 정도 옳다고 본다.

그러나 《편년통록》뿐아니라 《제왕운기》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대 조상을 넘어 5대 조상까지도 론하였다. 이것은 실록외에도 고려왕세계를 전하는 책들이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다른 점은 또한 왕씨의 유래이다.

《제왕운기》에서는 경강대왕(작제건)과 룡녀인 성모사이에 세조(룡건)가 태어나고 성모의 지시에 의해 기장 심는 일이 진행되어 그로부터 성씨를 왕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고려왕실에서 처음으로 왕씨로 불리운것은 왕건의 아버지인 룡건으로 된다. 즉 왕씨의 유래가 고려 태조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한세대 앞서 시작되었다는것이다.

《편년통록》에서는 세조와 도선사이에 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것이니 왕건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이렇듯 《제왕운기》에서는 왕씨라는 성을 룡건때부터, 《편년통록》에서는 왕건때부터 유래되었다고 기록해놓았다.

다른 점은 또한 호경과 함께 사냥갔던 아홉명의 사람들의 출신과 관련한 자료이다.

《편년통록》에서는 호경이 백두산으로부터 부소산마을에 와서 살면서 같은 마을사람 9명과 사냥을 떠난것으로 되어있지만 《제왕운기》에서는 그 아홉사람이 모두 백두산으로부터 데리고온 사람으로 되어있다.

다른 점은 또한 범에게 던졌다는 물건의 구체적인 이름이다.

《편년통록》에서는 범에게 던진 물건을 모자라고 하였지만 《제왕운기》에서는 의물 즉 옷가지라고 하였다.

다른 점은 또한 호경과 범, 산신과의 호상관계이다.

《편년통록》에서는 호경과 범, 호경과 산신을 별도로 취급하고있지만 《제왕운기》에서는 범을 너자신으로 둔갑시킴으로써 호경과 범, 산신을 한선에 련결시켜 그것들을 호상련관속에서 취급하고있다.

이 두 기록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같이 고려태조 왕건을 신성화하기 위하여 그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놓았다. 특히 《제왕운기》에서는 선행한 왕조들에 대해서도 신비화 하였는데 이것은 저자 자신이 고려사람이었기때문이다.

둘째로, 고려가 황제국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는것이다.

《제왕운기》에서는 《예로부터 임금들치고 그 누군들 뛰어나지 않았으리 허나 우리 황제 가계야말로 이보다도 더욱 뛰어나다네》라고 함으로써 고려왕의 황제적지위를 표현하였다. 이외에도 《제왕운기》에서는 천장(황제가 참가하는 과거시험장), 천손(황제의 자손), 태자 등 황제국에서 쓰는 표현들이 있다.

### 3. 결 론

고려시기 사가들의 역사에 대한 견해는 이전 시기에 비해볼 때 일정한 전진이 있었다. 특히 고려전반기보다 고려후반기의 사가들이 역사에 대한 자기들의 견해를 많이 기록해놓았다.

고대사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설화가 기본으로 취급되었다.

삼국사에 대한 사가들의 견해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것이 고구려건국전설인 주몽전설이었다.

《동국리상국집》 동명왕편에서는 구《삼국사》가 《삼국사기》에 비해볼 때 동명왕에 대하여 더 신비한것이 많다고 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였으며 《제왕운기》역시 구《삼국사》에 기초하여 동명왕전설을 개괄적으로 간략화하면서도 자기의 견해를 덧붙여 놓았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기초하여 동명왕전설을 전하고있다.

삼국사와 관련해서는 일연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보충한 측면이 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삼국과 함께 존재한 가야에 대하여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아 후세사람들로 하여금 가야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게 하였지만 일연은 《삼국유사》에 한개 항목으로 기록해놓았다.

발해사에 대한 사가들의 견해에서는 일정한 전진이 있었다.

김부식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의식적으로 배제하면서 발해관계사료를 몇건밖에 남겨놓지 않았다.

그러나 일연과 리승휴는 저서에서 발해를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하고 내용을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일정하게나마 발해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려에 대해서는 황제국의 지위에 놓고 그 역사를 논하였다.

고려의 역사를 전하는 책으로서는 그 당시에 편찬되어 오늘까지 전해지는것이 《제왕운기》뿐이다.

물론 《고려실록》에 그 전반역사가 반영되어있겠지만 현존하지 않기때문에 《제왕운기》와 《고려사》에서 인용한 《편년통록》에 기초하여 왕건의 왕세계에 대해서 논했을뿐이다.

고려시기 사가들의 역사에 대한 견해는 일정한 제한성을 내포하고있다.

우선 《신라중심》의 사관에 기초하여 역사를 대하였다는것이다.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의 건국년대, 고구려초기 왕세계, 고구려-수전쟁당시의 살수위치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정확히 밝혀놓지 않았으며 고구려의 역사를 신라의 역사보다 매우 소략해놓았다.

그리고 고구려의 지리지와 관련해서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에 편입된 지역에 한해서만 논의함으로써 마치도 고구려가 그 지역만 차지하고있었던것처럼 만들어놓았다.

특히 가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다. 김부식은 가야의 존재에 대하여 잘 알고있으면서도 그 나라가 신라에 병합되었기때문에 기록상으로나마 남겨놓지 않았다.

또한 사대주의적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하였다는것이다.

고려시기 사가들이 봉건대국주의사가들에 의하여 외곡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그대로 인정하고 단군조선을 이은 나라로 기록해놓은것, 발해를 마치도 말갈인들이 세운 나라인것처럼 생각하면서 《말갈발해》라고 한것 등은 그들의 사대주의적관점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시대적제한성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그 대표적인것이 고조선의 건국시기문제였다.

고려시기 사가들은 이전시기부터 전해져오던 사료에 근거하여 고조선의 건국시기를 밝히려고 하였을뿐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단군릉이 발굴되면서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고 고조선의 건국년대도 B.C.30세기초라는것이 확증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자료를 주체적립장에 서서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실마리어 구《삼국사》, 《제왕운기》